14011915 신예은

언어데이터와 텍스트마이닝

2017-04-29

**컴퓨터에 대한 맹신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컴퓨터의 등장]**

컴퓨터는 1944년 최초의 자동식 계산기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제작되었다. 이는 점차 발전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로 우리 생활에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2017년 현재 우리는 개개인이 하나의 소형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크게 발전된 기술이 핸드폰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컴퓨터는 매우 빠른 속도로 우리의 작업 능력을 향상시켜준다. 우리는 자판 몇 번만 두드리면 간편하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전세계의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며 의사소통도 가능하다. 또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새로이 창조하여 컴퓨터에서 실행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그 외에도 작은 부피 안에 큰 메모리의 사진, 음악, 비디오 등이 저장 가능하여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게다가 현재 5세대 컴퓨터라고 불리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컴퓨터는 인공지능 시스템까지 더해져 5차 산업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다.

**[생활 속 컴퓨터]**

우리는 이렇게 완벽한 컴퓨터를 맹신할 수 밖에 없다. 손으로 풀면 몇 시간이 걸리는 수학문제도 컴퓨터는 오류 없이 빠른 시간 안에 풀어낼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손으로 일일이 세면 오래 걸리는 투표용지들도 순식간에 분류해준다. 이런 컴퓨터를 어찌 맹신할 수 없겠는가.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컴퓨터를 이미 깊게 믿고 사람들이 하던 일 중 많은 부분을 대신 시키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은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하고 있다.

아침에는 핸드폰에 미리 예약된 시간에 알람이 울리고, 학교에 등교 할 때에는 카드의 정보를 전철 개찰구에 찍어 입력한다. 또, 학교에서는 출석 대신 핸드폰 프로그램을 통해 위치에 기반한 출석을 하기도 하고, 가끔 종이에 쓰는 시험이 아닌 컴퓨터를 통한 시험을 보기도 한다. 또, 인터넷 뱅킹을 통해 친구에게 돈을 보내고, 하루 동안 내가 걸어 다닌 거리를 측정해주는 어플도 있다. 이렇게 우리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것이 컴퓨터이고 인터넷이며 그 사이 존재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다. 우리는 이미 당연한 듯이 이 프로그램들이 우리대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해줄 것이라고 믿으며 사용하는 것이다.

**[컴퓨터의 문제점]**

물론 이 프로그램들의 오류는 드물다. 우리가 이것들을 믿고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러 가지 오류와 문제점도 등장한다. 우리가 세종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출석 시스템도 오류가 나기도 하고, 인터넷을 통한 시험에는 많은 허점이 있어 부정행위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 외에도 거리 측정 어플의 경우 진짜 우리가 걸어 다닌 거리인지 우리는 확인하기가 어려우며 분명 측정이 안될 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오류나 허점 외에도 우리가 원치 않은 정보들이 유출되기도 한다. 핸드폰의 위치 서비스로 인해 SNS를 통해 우리의 위치가 노출되기도 하며, 사진에는 위치도 함께 저장하여 원치 않은 공유가 되기도 한다.

‘더 플랜’의 사례를 보면 한 국가의 수장을 정하는 중요한 사건에도 작은 프로그램 변형으로 투표조작도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투표가 조작되었는지 혹은 조작될 가능성이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다. 우리의 의견 표출이 불가능 할지도 모른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외부인의 조작으로 결과를 쉽게 바꿀 수 있다. 알람, 우리의 은행정보, 출석, 시험, 인터넷 뱅킹, 위치 모든 것이 조작이 가능하고 이는 어쩌면 너무 쉬운 일일지도 모른다. ‘더 플랜’에서 불과 몇 일 만에 새로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무조건적인 신뢰는 금물]**

앞서 본 문제점, 한계, 조작 들을 보면 우리에게 구체적인 극복방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어떤 것이 우리의 해결방안이 되어줄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문제점 들을 해결하기 위해 무조건 이런 프로그램 및 기계를 그만 사용할 수는 없다.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효율적인 삶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조금 더 주의를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우리는 무조건 신뢰하며 우리의 정보를 다 넘기기 보다 적어도 어떤 점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어느 부분에 허점이 있는지 어느 부분이 위험한지 대략적으로 알아야 필요가 있다. 남이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고 나의 의견이 표출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알아야 하며, 무조건적인 신뢰는 금물이다.

아는 것에 대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문자가 아닌 이상 다가가기 쉬운 전공은 아닌 것 같다. 이에 대해서 나는 ‘언어데이터와 텍스트 마이닝’ 수업에서 배우는 자료들이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 만큼의 배움은 아니지만 컴퓨터의 기초 구성요소에 대해서도 배우고, 발전된 기술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계속 알게 된다. 그 외에도 수업을 통하지 않았더라면 ‘더 플랜’ 에서 나온 2012년 대선의 비정상적인 결과에 대해 영원히 모르며 살아갔을 것이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컴퓨터, 핸드폰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사용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전문적이 수준이 아니더라도 나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싶다.

생각해보자, 인간이 편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그런 요소 하나를 바꾸어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더욱이 쉬운 일이란 것을.